

곰솔·편백 군락에 펼쳐이는 갯벌...강진만 생태탐방 1번지



지난 2013년 설치된 가우도의 출렁다리. 모두 200억원이 투입된 이 다리 덕분에 가우도는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와 대구면 저두리에서 배 없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섬이 됐다.



3부 전남도 선정 '가고 싶은 섬'

③ 강진 가우도

가우(鵜牛)는 가마나 상여 또는 짐수레를 끌던 소를 의미한다. 이 가우라는 이름을 붙인 섬은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에 있다. 강진군 내 유일한 유인도로,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부터로 추정된다.

“가우도는 섬의 지형이 소의 멍에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약 600년 전 고씨성 20호가 자리잡다가 사라지고, 다시 약 400년 전 경주 김씨가 자리잡고 살며 지금까지 8대손을 이루고 있다.” 13년 전인 2002년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가 낸 ‘전남의 섬’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우도다. 당시 거주인구는 13가구 46명이었으며, 현재는 20가구 53명(실거주 14가구 31명)으로 증가했다.

◇강진 유일한 유인도, 경주 김씨들 모여 살아 =강진의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는 지자체인 강진군이 ‘울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또 특정 섬씨가 오랜 기간 섬에 뿌리를 내려 주민 간 화합이 잘 된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0.32㎢ 면적에 임야가 0.21㎢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섬 자체가 거대한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20가구 거주 강진 유일 유인도

2013년 출렁다리 육지 연결

작년 방문객 4만명 꾸준히 증가

당집·풍어제 무형 유산도 풍부

아니다. 사방으로 강진만과 무인도(죽도, 비래도, 외호도)를 볼 수 있고, 북측과 남측은 해안, 동측과 서측은 숲이 주된 경관을 이루고 있다. 곰솔과 소나무 군락, 편백나무 군락, 후박나무 군락 등 숲도 다양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영암~순천고속도로 등에 의한 접근성도 높고, 지난 2013년 만들어진 출렁다리를 통해 걸어서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섬 안에는 자동차도로가 없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 뒷산 후박나무 군락지에는 마을의 안녕

과 풍어를 비는 당집(서낭당)의 흔적이 남아 있고, 매년 봄이면 마을 어귀 우물가에 마을을 상징하던 수령 500년 이상의 쯤뽕나무 아래에서 풍어제를 지내는 등 무형의 유산도 상당하다.

◇이미 연간 4만명 찾는 섬·만족도 높아야 =가우도에는 나무 군락 이외에도 갯벌과 함께 생태탐방로, 복합낚시공원 등의 자원이 있고, 이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남도 답사 1번지’로 알려진 강진군 도암면의 다산 정약용 유적지, 대구면 청자박물관 등의 중간에 위치해 가우도를 찾는 방문객도 지난해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도록 하는 정책과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강진군의 판단이다. 섬 내에는 어촌계,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새마을지도자회, 개발위원회 등이 구성돼 있으며, ‘가고 싶은 섬’ 공모 신청을 앞두고 가우도 주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의 마을회의를 가질 정도로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다.

주민들은 농·어업을 동시에 종사하면서, 어패류 양식과 조업으로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가우도에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30억원을 투입해 낚시터와 부잔교 등 복합낚시공원, 2014년에는 19억원을 들인 가우도 생태탐방로가 각각 조성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00억원을 들인 출렁다리가 들어섰고, 올해는 42억원의 예산으로 강진청자터워 및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람·바다·숲의 향기로 뒤덮인 가우도 =강진군은 주민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여 자체 해설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폐가를 리모델링해 시골집 체험장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고향내음 쉼터’, 갯벌체험장을 만들고 기존 마을공동창고와 저온저장고를 2층으로 리모델링해 카페테리아를 배치해 신선한 해산물과 관련 요리, 음료 등을 판매하는 ‘바다내음체험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 당제터를 복원하고 사계절 향기가 나는 숲을 조성하는 ‘숲속내음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강진군과 가우도 주민들의 복안이다. 전체 사업비는 40억원(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추정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가우마을 전경. 400여년 전에 정착한 경주 김씨를 중심으로 20가구 53명이 거주하고 있다.



출렁다리로 가우도를 찾는 외지 방문객들. 지난해에만 4만명이 찾았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먹거리 X파일

MC 김진 채널A기자

매주 금요일 밤 11시

http://tv.channela.com/culture/xeat 02 2020 3333~4

CHANNEL A

-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 해남 영암 진도 장흥
- 스카이라이프 13
-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